

# 탑솔라, 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2000만원 상당 구매 약정

### 성공 개최 기원...사회적 책임 이행 앞장 오형석 회장 "전남 재생에너지사업 확대"

전남지역 기반의 국내 최대 태양광기업인 탑솔라 그룹(회장 오형석)은 2일 전남도청 VIP실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탑솔라 유병진 대표이사, 김중기 조직위 사무총장, 정현우 여수부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으며, 탑솔라는 2000만원 상당 입장권을 구매하기로 약정했다. 이번 약정은 전남도에 본점을 두고 전남개발공사와 공동으로 무안군·영광군에 BESS 160MW를 추진중이며 지난 1월 시디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

전남도 핵심 역점사업인 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는 탑솔라가 지역의 경제·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탑솔라는 2002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태양광발전 누적 시공용량 1.6GW, 에너지저장장치 1.1GWh 시공, 발전소 O&M 1000개소·1GW를 달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신재생에너지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진도, 영광 등 전남 도내 대규모 풍력발전을 추진중이고 광주시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내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광주시도시공사와 공동 시행하는 등 대

한민국 대표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서 사업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오형석 탑솔라 그룹 회장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큰 국제 행사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 입장권 구매 약정을 발판으로 향후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태양광, 풍력 등 전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전남도와 여수시가 공동 주최하며 2026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 행사로서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여수시 돌산 진모지구,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도 및 금오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국내 최대 태양광기업인 탑솔라 그룹(회장 오형석)은 2일 전남도청 VIP실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개최했다.

## 김형신 제3대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장 취임



### "대한민국 대표 해양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청소년해양교육원이 미래 해양 인재 양성의 핵심 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신 전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이 지난 1일 제3대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장에 취임했다. 김형신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육 생활 중 한국해양소년단을 통해 해양교

육과 인연을 맺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밑거름이 됐다"며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바다를 통해 꿈과 용기를 키울 수 있도록 해양교육과 해양생태교육, 해양체험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

양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신 한국해양소년단전남본부연맹장은 축사에서 "다양한 공공 교육 분야에서의 헌신과 한국해양소년단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원의 발전과 청소년들에게 큰 꿈과 비전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원과 긴밀히 협력해 해양 인재 양성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신 신임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장은 38년간 중등교사, 교감, 교장,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여수공공스포츠클럽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장흥군은 최근 장흥보건소에서 '더 푸른장흥 건강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장흥군청

## 장흥군, 더 푸른장흥 건강아카데미 수료식

### 지역 건강리더 육성 초점

장흥군은 최근 장흥보건소에서 '더 푸른장흥 건강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건강아카데미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총 7회 과정으로 운영됐으며, 걷기지도자 양성을 비롯해 요가, 심폐소생술, 저염식단 만들기, 건강마사지 등 다양한 체

험·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지도 능력을 갖춘 걷기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영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 운동·나눔...광주사랑의열매 건강기부 캠페인 '주목'

### 생활체육 연계...도경건설 골프대회 400만원 기부 고려인·이주민 가족 지원...스포츠 꿈나무 육성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생활체육과 기부를 결합한 참여형 나눔문화 확산에 나섰다. 광주사랑의열매는 걷기와 골프 등 일상 속 체육활동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기부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반 시민과 생활체육 동호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전개할 예정이다. 첫 캠페인으로, 도경건설(주)이 창립 13주년을 맞아 '도경 한마음 나눔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기존 인직원 중심 행사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행사로 확대한 것으로, 참여형 기부 모델

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회에는 총 63게임, 252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은 라운드 과정에서 1홀당 1000원씩 기부하는 방식으로 나눔에 동참했다. 이를 통해 1인당 1만8000원의 기부가 조성됐고, 총 453만6000원의 성금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휴일원을 기원하며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등 생활체육과 나눔이 결합된 새로운 기부문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박정연 도경건설(주) 대표이사는 "회사의 성장은 지역사회의 성원 덕분"이라며 "이번 행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이웃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진석 광주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건강기부 캠페인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모델"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생활체육과 연계한 기부 활동을 지속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는 '건강기부 캠페인' 참여에 나선 도경건설(주)이 '도경 한마음 나눔 골프대회'를 통해 마련한 453만6000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사진제공=광주사랑의열매

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고려인과 이주민 가족 지원, 저소득층 스포츠 꿈나무 육성, 은퇴 체육인의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임명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목포대, '도종환·김성장 초청 시서예전' 개최

### 시 언어·서예 펼쳐 조화 예술적 교감의 장 마련

목포대학교 박물관은 최근 '도종환 시인·김성장 서예가 초청 시서예전' 개막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송하철 목포대 총장을 비롯해 도종환 시인, 김성장 서예가, 전남예총 전종구 상임고문 등 내외빈과 지역인, 학생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시는 '국문 시인'으로 사랑받는 도종환 시인의 깊은 울림을 담은 문장과 그의 시어들을 예술적 필치로 재해석한 김성장 서예가의 작품이 어우러진 시서예전 형식으로 구성됐다. 송하철 총장은 "남도 문화예술의 중



목포대학교 박물관은 최근 '도종환 시인·김성장 서예가 초청 시서예전' 개막식을 가졌다. 사진제공=목포대학교

심인 국립목포대에서 한국 현대시의 거장과 서예 대가의 만남을 선보이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전시가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들에게 깊은 예술적 위로와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이윤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전시 개막 이후 진행된 특강에서 도종환 시인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반드시 고요를 찾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그 고요한 시간이 영혼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대인들이 가져야 할 '성찰의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어린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태도를 견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생은 "교과서나 책에서만 보던 시인의 작품을 서예 예술로 직접 관람하고, 시인들의 강연까지 들을 수 있어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도종환 시인의 문학적 성찰이 담긴 이번 시서예전은 국립목포대 박물관과 목포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오는 8일까지 이어진다. 목포=이윤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최근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등 아동센터와 연계한 10개소 800여명의 아동들에게 9000여만원 상당의 학용품 희망키트를 전달했다. 사진제공=포스코광양제철소

## 포스코광양제철소 지역아동들에 9000만원 상당 학용품 전달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최근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등 아동센터와 연계한 10개소 800여명의 아동들에게 9000여만원 상당의 학용품 희망키트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제철소는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과 학용품 선정 감담회를 갖고 이들과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용품 위주의 키트를 구성,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전달된 희망키트는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네임펜과 지우개, 테이프, 필기도구에서 전통 연필 깎이, 초소구 충전기, 라벨 프린터, 텀블러, 이어폰까지 17종이다. 박종일 제철소 행정부소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의 성장 환경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제철소는 앞으로도 미래세대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철소는 지역 아동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이동용 차량 지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미래 세대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가고 있다. 한편 제철소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새 학기 희망키트를 제작해 전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9년 간 8423명에게 8억 2000만원 상당의 키트를 전달했다. 광양=귀귀진 기자 kkin@gwangnam.co.kr